

■ 현장과 시각 ■

한나라 의원의 훈수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한나라당 의원 5명의 25일 여수 방문은 당내 농어촌지원 대책단이 펼치고 있는 민생 탐방의 일환이었지만 그 장소가 여수인 만큼 뜻있는 행사였다. 여수 액스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전남도와 여수시의 입장에서 여당의원들의 방문은 천군만마와 같은 기회이기 때문이었다. 이날 여수를 방문한 한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명박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국회의장 내정자 김형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장이 유력한 윤두한, 박근혜계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출신 이정현 의원 등 여당의 중진이면서 실력자였다.

덕분에 수확이 꽤 커졌다. 이들 의원들이 모두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여수 액스포 관계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었다. 수산관계자와 선상간담회, 어민 간담회, 시민대표 간담회, 상공인 간담회 등 여수를 떠나 하동으로 갈 때까지 단 10분을 쉬지 않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 간담회 내내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고, 여수의 미래를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상득 의원은 “2012년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를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과 남해를 잇는 영호남 대교를 만들자는 제안,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갖고 호남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맞은 전남도의 태도였다. 전남도지사는 물론 부지사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지원이 절실한 전남도의 처지와는 맞지 않는 처사로 보였다.

인접한 하동군의 태도는 너무 달랐다. 여수 액스포의 개최 효과를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중인 하동군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수 방문 끝자리에 잠깐 들렀을 뿐인데도 해외 출장 중인 경남지사를 대신해 정무부지사가 직접 나와 이것 저것을 부탁하고 청겼다.

이들 의원 5명이 힘을 보태준다면 여수 액스포 예산 지원뿐 아니라 기타 전남도의 현안 문제의 해결에도 큰 힘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전남지사가 버선발로 나와 맞이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의 행정수장이 정당의 이해를 떠나 지역발전 도움을 호소함으로써 기억에 남는 방문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었을까.

전남도에서도 활발은 있다.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 지사가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지방의 현안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의 설명에 과연 수긍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날 방문단의 이정현 의원은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 아니라도 광주와 전남 차지단체장들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선 모든 걸 초월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오히려 훈수를 했다.

/jkpark@kwangju.co.kr

北 핵신고서 제출

어떤 내용 담겼나

플루토늄 추출량·사용처 적시

시리아와 핵협력 의혹 등은 포함 안돼

북한이 26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북한 핵문제의 핵심인 플루토늄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조만간 각국에 회람시킬 신고서는 대략 45~50쪽 분량으로, 크게 보면 영변 5MW원자로를 비롯한 핵 관련 시설 목록과 플루토늄 추출 및 사용 현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페이지 수로만 보면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량으로, 신고서에는 36~37kg 정도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추정해 온 양(35~60kg)의 범위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측

보다는 상당히 적어 향후 검증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의 양을 북한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신고 내용이 맞는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량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해서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06년 10월에 단행한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에 쓰인 플루토늄 양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신고서에 핵무기 개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데 쓴 플루토늄 양으로 북한이 보유한 대량의 핵무기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 통상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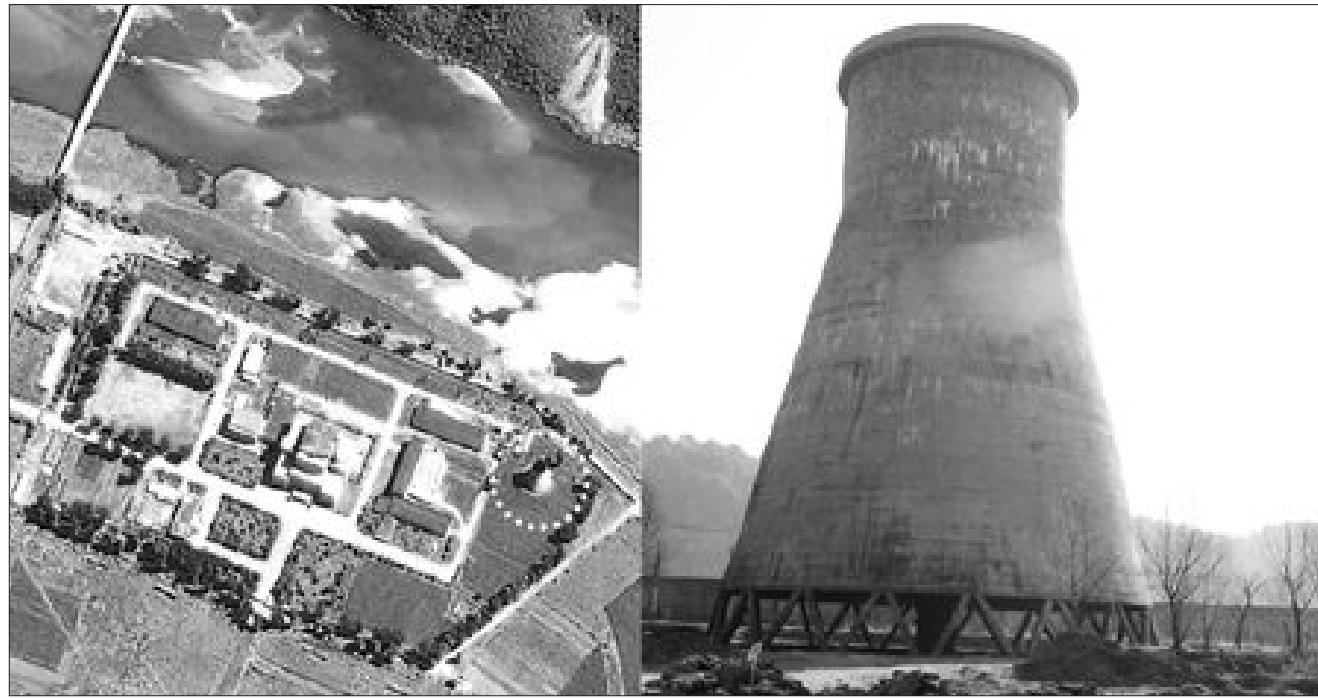
6~8kg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따라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데 사용한 플루토늄 양이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개수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은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핵연료봉 공장,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과 함께 핵폐기물 저장소와 핵관련 시설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시설의 구체적인 운행기록은 북한이 지난달 10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이미 건네 신고서에는 거쳐야 신고가 완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사항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가지 사안은 지난 4월 초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중국에 제출하는 정식 신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북·미 간 비밀문서로만 담기로 양측간에 합의된 바 있다.

/연합뉴스



폭파될 영변원자로 냉각탑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28일 폭파되면 지난해 10·3 핵 폭파 이후 8개월 동안 멈춰있던 북핵 폐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쪽은 28일 사라질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허물에 서 바라본 모습(점선 내부). 오른쪽은 지상에서 본 냉각탑.

/연합뉴스

■ 10·3 핵 폐기 프로세스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26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건넸지만 약속했던 시한보다는 6개월 가까이 늦었다.

작년 ‘10·3 핵 폐기’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연말까지 핵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핵신고의 3가지 요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등이 모두 쉽지 않은 이슈인

‘분리신고’ ‘간접시인’으로 실타래 풀어

데다 특히 UEP와 핵협력 의혹에 대해 북·미가 침에 맞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것 같던 협약은 ‘분리신고’와 ‘간접시인’ 방식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실마리를 찾았다. 요약하자면 플루토늄 관련 사항만 정식 신고서에 담고 UEP와 핵협력 의혹 등은 비공개 양해각서로 북·미

간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며,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기는 내용은 미국이 자신의 이해사항을 기술한 뒤 북한이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자는 것이다.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은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면서 핵 신고를 향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연합뉴스

합격률 1위 기념

- 수험료 10% + 교재 30% 할인
- 프리严重影响 29% 할인
- 수험료 200원, 교재 60,000원 원래 150원을 2개월 전 구매한 대비

동부고시학원

www.dongbuugoo.com
시대의 거리 대전점 구 도당점

새로운 국가자격증

업무보증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각별히

교육과정

자격증 1번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산업치료사)

기타증 1번 (사회복지사) 신규자 1번 / 경력자 1번

신규 종합면 09:00~16:00(월~금) 신규 모집면 09:00~16:00(월~금)

신규 모집면 09:00~16:00(월~금) 신규 모집면 09:00~16:00(월~금